

“불자 한 분 한 분 정성에 큰 감동 느껴”

봉은사 초하루법회 사부대중 발우저금통에 정성 듬뿍 담아 ‘백만원력 결집불사’ 힘 보태

김포 보리수요양병원 임직원 불사후원금 6천만원 ‘보시’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추운 계절이 다가왔지만, 한국불교 미래를 밝히는 ‘백만원력 결집불사’에 동참하는 불자들의 정성은 변함이 없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스님)는 초하루 법회가 열린 지난 11월27일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백만원력 결집불사’ 모연행사를 열고 불자들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선 불교와 종단의 발전을 발원하는 봉은사 신도들의 신심을 엿볼 수 있었다. 신도들은 발우 저금통에 정성을 목작하게 담아 총무원장 원행스님에게 전달했다. 동전을 가득 채워 무게가 1000여 개. 불자들의 원력을 확인한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한 분 한 분 심시일반 모아 주신 정성에 감사드립니다”며 환한 웃음으로 화답했다.

신도뿐만 아니라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과 교역적 스님, 신도회 김상훈 회장과 임원들도 솔선수범 불사 동참금을 쾌척해 의미를 더했다. 특히 원명스님은



서울 봉은사는 초하루 법회가 열린 11월27일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백만원력 결집불사’ 모연행사를 열고 불자들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불자들이 정성이 가득 담긴 저금통을 전달하자 총무원장 원행스님(가운데)은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신재호 기자

초하루 법회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비록 작은 원력이라도 모든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한다면 불교와 종단, 그리고 나 자신을 바꾸는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불사 동참을 독려했다. 이날 모연 행사에 함께한 김관오(여, 57, 서울 서초구) 씨는 “정성스런 마음이 잘 전달돼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봉은사는 이날 모연된 성금과 신도회에서 마련한 기금, CMS와 지로 후원금을 종합해 오는 12월 별도의 전달식을 가질 예정이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이날 봉은사 초하루 법회 법사로 나서 “하루하루 작은 것이라도 베풀고 나누며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등 ‘구법(求法)’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최근 파키스탄에 국빈 방문한 소감도 전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인도에서 시작된 부처님 법이 파키스탄의 라호르, 길기트, 페샤와르 등의 험난한 길을 거쳐 중국에 전해졌고 덕분에 우리나라에도 부처님 법이 꽃 피울 수 있게 됐다”며 “우리 불자들이 목숨을 걸고 동아시아에 불교를 전하고자 했던 구법승들의

의 숭고한 마음을 기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종단의 대표적인 의료기관으로 꼽히는 김포보리수요양병원에서도 ‘백만원력 결집불사’에 정성을 모았다. 김포보리수요양병원 이사장 현범스님과 임직원들은 11월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불사 기금 6000만원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귀중한 마음을 모아줘 고맙다”며 “앞으로도 불사에 관심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진 기자 sj0478@ibulgyo.com

가장 낮은 곳 가장 험한 처지 목숨 건 9인 수행자를 보았다

동안거 ‘새로운 성지’로 자리잡은 상월선원

총무원장을 역임한 자승스님을 비롯한 9명의 수좌가 천막에서 동안거를 나는 상월선원(霜月禪院)이 새로운 성지로 부상했다.

지난 11월11일 상월선원 천막법당문이 닫힌 뒤 이곳을 찾는 불자와 각계 인사들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상월선원을 에워싼 철망 앞과 사시불공 올리는 법당은 대중들로 북적인다. 봉은사 구공사 전관사 봉국사 용화사

다. 벌써 사찰은 물론 개인과 단체 등 동참 문의가 잇따른다고 한다.

수좌들과 교묘히 앉아 정진하는 여느 선원과 달리 상월선원 주변은 노래와 춤 북 장구 기타 등 온갖 악기로 요란하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험한 처지로 오직 중생의 이익을 위해 정진하니 대중에게는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다. 그래서 상월선원의 춤과 음악은 향락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 광명으로 모든 근심 고통을 끊고 환희와 안락으로 장엄하는 건달바의 축원이다.

상월선원이 이처럼 새로운 성지로 부상하며 전국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다. 목숨을 던지는 수행자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상월선원에 방부를 들인 9명의 수행자는 목숨을 걸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목숨을 걸고 6년 고행하셨으며 대장백의 지위에 올랐으나 죽음 앞에 무력감을 느낀 경허선사는 방부를 걸어 잠그고 목숨 걸고 정진한 끝에 오도(悟道)하였으며, 제선선사는 햇볕 한 점 들지 않는 한 평도 되지 않는 방에서 6년간 폐관정진했다.

목숨을 걸었으니 모든 조건이 면지 만도 못하다. 죽음을 각오했다는 그 자체도 쓸모없는 수식이며 걸친 가사 그대로, 앉은 그 자리 그대로가 수행 처니 천막법당이라는 명칭도 부질없다. 1초가 1000년이며 1000년이 1초니, 100일이니 반결제니 구분도 의미 없다.

반면 중생은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읽었던 조시(祖師)를 눈앞에 대하는 홍복(洪福)을 누리 선방 문고리라도 잡으려 애쓰고 최대한 가까이서 숨결이라도 느껴려 발걸음 하니, 바로 ‘상구보리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이다.

박부영 기자 chisan@ibulgyo.com

‘이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것’ 전국 불자 시민 정관계 인사 상구보리 하화중생 현장 발길

노래와 춤 북 치고 장구 치며 한마음으로 환희와 안락 축원 주말엔 함께 정진하며 뒷받침

등 서울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양양 낙산사, 대구 성화사, 안동 봉정사와 연미사 등 전국 불자들이 상월선원을 찾는다.

▶관련기사 3면

일반 재가자와 스님들뿐만 아니라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윤성이 동국대 총장 등 재가지도자들과 강창일 국회 정각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부인 강 부인 최지영 여사 등 정·관계 인사들도 선원을 찾아 정진하는 스님들의 건강과 국민 평안을 기원했다.

매주 토요일 정진일에는 재가불자들의 열기가 더 뜨거워진다. 11월23일 두 번째 토요일 정진법회에는 재가 외호대중 200여 명이 법당을 가득 메웠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신묘장구대라니 기도는 밤새 이어졌다. 그 열기를 이어 12월7일에는 철야정진이 열린다.

제31회 포교대상 우학스님·윤청광 이사장

제31회 조계종 포교대상 대상 수상자로 한국불교대학 대관읍사 회주 우학스님(사진 왼쪽)과 윤청광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장(오른쪽)이 선정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스님)은 지난 11월 26일 포교대상 심사위원회를 통해 제31회 포교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8면

종정상인 ‘포교대상’을 수상하게 된 우학스님은 남다른 포교 원력으로 한국 불교대학 대관읍사를 창건해 도심포교



는 물론 대사회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대상 공동 수상자인 윤청광 이사장은 1987년 불교신문

문 논설위원을 시작으로 30여 년 간 방송·출판 분야에 몸담으며 불교 언론 발전에 힘썼다.

또한 공로상(총무원장상)에는 ‘노래하는 스님’으로 잘 알려진 서산 서광사 주지 도신스님을 비롯해 20여 년 동안 목동 청소년수련관장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한 서울 서북사 주지 경륜스님, 수련회로 재가자 신행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전완중 제12교구 신도회장, 활발한 승보공양운동으로 모범이 되

고 있는 주운식 제8교구 신도회장,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에 보시한 송정숙 불자가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원력상(포교원장상)에는 가야문화진흥원 초대이사장으로 가야불교역사 발굴에 힘써온 통도사승가대학장 인혜스님, 사찰음식 대중화에 진력한 서울 전관사 총무국장 범해스님, 전법 교화활동에 힘 쏟고 있는 남창원 한국세무사 불자연합회장, 김영주 제16교구신도회 사무국장, 신기열 법어사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장과 조계사 불교대학이 각각 선정됐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60th 불교신문 창간60주년 맞이 특별기획

‘올해의 불서10’은 어떤 책? 5면

제1회 한암·탄허학술상 수상자 6면

▶‘천년고찰의 나이트’ 쌍봉사 12면



미얀마사원에서 10년 수행하신 “성오스님” 과 함께하는

미얀마 성지순례 8일

미얀마 최고의 3대 성지 웨다곤 대탑, 마하무니불상, 짜이티요 황금바위를 모두 보는 일정으로 성오스님의 수행 법문과 함께 합니다.

일정: 인천-양곤-짜이티요 황금바위-양곤-바간-만달레이-빈다야-헤호(2박)-양곤-인천

출발일 : 2020년 2월 12일 ~ 19일 (8일간) 동참금: 265만원

파키스탄 성지순례 7일

불상의 탄생지 간다라 불교유적지

출발일 2020년 3월15일~21일

중국 실크로드 동황순례 10일

현장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코스

출발일 2020년 3월13일~22일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maumtour.com

인도·네팔 성지순례 10일

출발일 2020년 3월10일~19일

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출발일 2020년 6월3일~18일